

#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NH농협은행, 불광노인복지관 찾아 '여름나기 지원'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기업투자금융부서 임직원들이 서울시 은평구 구립불광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원한 여름나기 지원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투자금융부서 오경근 부행장(오른쪽)이 지난 9일 구립불광노인복지관 윤남선 관장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최윤 OK금융회장, 도쿄올림픽 선수단 부단장 선임

OK금융그룹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공식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박완용 럭비 세븐스 국가대표팀 선수, 서천오 럭비 세븐스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여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OK금융그룹

## 오뚜기합태호재단 합태호 학술상 시상식 개최



재단법인 오뚜기합태호재단이 제23회 합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오뚜기합태호 학술상 시상식에는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재한 교수(사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뚜기합태호 학술상의 시상은 오뚜기합태호재단의 합영준 이사장을 대신해 오뚜기합태호재단 박기문 이사가 상패와 부상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남양유업 대구지점, 취약층 아이들 급식물품 지원

남양유업은 대구지점 임직원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급식 후원 물품을 대구 동구 자원봉사센터 측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물품은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급식 물품으로 쓰일 예정이다. 남양유업 대구지점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두유 제품 32박스를 후원한 바 있다.

/남양유업



일화, 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과 유망주 육성 맞춘

일화가 배드민턴 유망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과 손을 맞잡았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이용국 회장(왼쪽)과 일화 김상균 회장이 일화x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스폰서십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일화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을 읽기

근로기준법은 부당하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33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하고 등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판정서에 기재된 구제명령에는 통상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행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을 정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게 된다. 부과예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판정서상의 이행기한이 초과했다라도 사용자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

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부당하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간, 즉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불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수

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러나 취소소송 1심에서 사용자가 승소하더라도 항소, 상고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 SK이노, 5년 연속 발달장애인 꿈·재능 발굴 지원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  
8월 13일까지 참가팀 모집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가 이달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꿈과 재능을 펼칠 예선 참가팀을 모집한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발달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2017년부터 매년 10월경 GMF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트-하트재단은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전문단체다.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고, 국내 발달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창단 등 문화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제5회 GMF는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고 SK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SM엔터테인먼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후



지난해 10월 송파구 하트-하트재단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GMF는 전국 각지에서 음악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연팀에게 보다 도전적 목표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시설, 단체 성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들이 각자의 노력과 땀으로 일궈낸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

기 위함이다.

제5회 GMF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클래식·실용음악을 하는 2인 이상 팀으로 구성돼야 하며 나이 제한은 없다. 또한 성악과 합창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장애인은 전체 연주 인원의 1/3이내여야 하고, 본 페스티벌 역대 대상 수상팀은 참가할 수 없다.

올해 GMF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

선 경연은 참가자들에게 정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 9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 정부 가이드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5회 GMF의 예선 접수 기간은 8월 13일까지며 하트-하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대상 1팀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 1팀 상금 5백만 원 ▲우수상 2팀 각각 상금 2백만 원 ▲장려상 2팀 각각 상금 5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연주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달장애인 공연팀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상 수상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포스코청암재단, 지역 등대장학생 250명 선발

포항·광양 지역 고 3학년 대상  
장학증서, 50만원 장학금 지급

포스코청암재단이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도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선에 나선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포항·광양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해 '위드 포스코(With POSCO) 등대장학생' 250명을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대장학생 선발사업은 학업 우수 포항·광양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포스코가 '등대'처럼 앞길을 비춰주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난달부터 각 학교장 추천과 재단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포항·광양지역 36개교 250명 장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김선욱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부단히 연마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장학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환경의 포항·광양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그룹이 지향하는 '함께하고 싶은 기업'의 모습을 담은 기업시민 5대 브랜드 활동 중 하나인 Life with POSCO(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와 Community with POSCO(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 김희천 △글로벌성장정책관 오기웅 △창업진흥정책관 노용석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박종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김대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노동정책실장 김민석 ◇과장급 전보 △인건고용센터소장 김영심 △충주지청장 김진하 ◇팀장급 전보 △자산운용팀장 전대환  
◆중앙그룹 ◇중앙일보S △증권팀장 김성희  
◆e대환경제 △정책·금융부장 겸 디지털

총괄센터장 이주엽

## 부음

▲김정순씨 별세, 김소형·김민형·김경아·김시영(송정약품 상무)·김세영(서울경제골프팀 기자)씨 모친상, 박해오(수원교육

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주용관(공무원)·박길수(자영업)씨 장모상, 최현주(남양주시청 근무)·황삼원(주부)씨 시모상 = 10일 오후 10시20분, 전북 정읍아산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장지 전북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선영. 063-530-6702